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6).

베네수엘라 소식

전통적인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2000 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마두로의 독재-반미주의로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변했다. 인구 2 천 8 백만 중 현재 900 백만명이 나라를 떠났다. 특히 20-40 대 젊은 세대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환율은 곤두박질치고 화폐는 종이조각이 되고 아뿌레주에서는 게릴라가 출현하였다. 은퇴자들의 사회보장금 (INSS)은 현재 미화 12 볼로 달걀 한꾸루미를 살 수 있다. 휘발유 값은 장외시장에서 \$2/L. 석유매장량은 세계 1 위 이지만 부품이 없어 정유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해양연구 교수 은퇴연금이 \$4 천여불 에서 (90 년대 말) \$12 볼 정도로 줄었다 (2022 년 현재), 3 성 장군의 월급도 \$18 볼 정도다. 사회주의정책 20 년의 산물이다. 베네수엘라는 청정지역이었다. 그러나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전파하며 베네수엘라까지 도착 하였다. 예배가 중단되었다. 모든 거래는 달러화되었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해외선교부 파송선교사가 되다

TEXAS A&M 대학에서 해양수산화 박사학위 취득한 1977 년 2 년 계약으로 베네수엘라해양연구소 연구교수로 부임하였는데 45 년 동안 살고 있다. 우리들은 미국 떠나기 전 휴스턴 Garden Oak 침례교회에서 침례받았다. 국립대교수라 1982 년 베네수엘라 시민이 되었고 남침례교단 (CNBV Convención Nacional Bautista de Venezuela) 소속이었다. 1987 년 미남침례회 국내선교부 문대연 목사님이 꾸마나에 오셨다. 당시 몬따니따에서 가나안침례교회를 개척중이었다. 해양연구소와 선교지를 둘러보고 강권하셨다. 같은 남침례교단인 미주 한인침례총회 해외선교부에 소속하라고. 1988 년 한인세계선교대회 초청 해 주시고 박근서 해외선교부장 만났다. 당시 달라스제일침례교회(현 뉴송교회) 손영호 목사님이 총무였다. 그러나 파송교회는 없었다. 자비량으로 1978 년 선교에 참여하여 2000 년 6 월 중앙교회 은퇴까지 7 교회가 개척되었고 2005 년 카리브신학교 설립때 신학교 건물에 한교회가 추가되었다.

꾸마나에 침례 교회 설립하다



꾸마나에 개척된 8 개 침례교회: 왼편에서 부터 제일침례교회, 가나안침례교회, 중앙침례교회, 예수선한목자교회, 새생명교회, 연합샘물교회, 예수연합교회, 예수생명교회

코로나열병으로 삶이 어려워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 가정교회로 분산예배하는구나. 기댈곳은 하나님 뿐 이라 2021-2 년 각 교회마다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는자의 수가 늘어났다. 우리가 개척한 8 교회 중 5 교회에서 68 명: 제일침례교회 15 명, 중앙침례교회 12 명, 가나안침례교회 8 명,

연합샘물교회 21 명, 예수생명교회 12 명, 그리고 카리브복음신학교 출신목사님들 침례교회 65 명: 예수축복교회 20 명, 엘티그레 교회 7 명, 카리아코 예수대사교회 14 명, 타깔교회 12 명, 까사나이 침례교회 4 명, 그리스도유일한소망교회 8 명, 모두 133 여명이 침례받았다. 할렐루야!

글로벌아동식량재단 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 사역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폭망하여 아동들이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못한다. 이 아이들이 베네수엘라 꿈나무다. GCF 에서 베네수엘라 장래를 위하여 아동급식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새누리침례교회 정경애 권사 추천). 각지역 20-25 명의 아이들에게 한주에 2 번씩 식사를 제공하여 이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육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도록 음식을 제공하며 정서적 교양교육과 더불어 기독교적 성서교육도 실시한다. 제일침례교회 근처 베베데로 지역, 중앙침례교회 페이알레그리아 단지, 예수축복교회 엘디께 지역, 예수선한목자교회 까이구이레 단지, 카리브신학교 인근 라꼬빠따 지역에 봉사한다.



GCF 제공 어린이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5 개지역 중 엘디께(인편) 페이알레그리아(중앙) 라꼬빠따 지역어린이들(우편)

카리브복음신학원 현지화하다

나는 2000 년 해양연구소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62 세의 초로장년으로 GGBST 골든게이트신학원 (현 게이트웨이 신학원)에서 2021 년 MDiv 과정 2004 년 DMin 과정을 이수하며 2005 년 9 월 17 일 꾸마나에 카리브복음신학원을 개설하였다. 현재 베네수엘라 목사님들이 운영하고있다. 동부지역 6 곳에 EXTENSION SEMINARY 지방분교를 운영한다: 카리아코, 카루파노, 엘띠그레, 마리귀달, 몬따니따, 아라이야. 정규 과정으로 목회학석사과정 3 년, 학사과정 4 년, 특수과정 10 주, 선교사 훈련과정 2 주로 섬긴다. 금년 2022 년 가을학기에 특수과정은 카리아코, 카루파노, 엘띠그레, 아라이야등 각 지방분교로 확장하였다. 가을학기 등록자는 학부과정 51 명 석사과정 27 명 특수과정 124 명 모두 202 명이다. ZOOM 온라인과정을 위하여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A&Ω) 설치하였으며 16 명에게 셀폰이나 테브릿을 지원하였다. 문교부에 신학교가 등록되도록 기도한다. 현 정부가 허락하지않지만. 대신 본교 졸업자들은 매릴랜드신학교 (총장 안준식 박사) 졸업장과 영사인증 (Apostillos)을 받는다.



첫 졸업식 2008 년 (왼편사진) 목회학석사 6 명 배출시작하여 2021 년까지 (오른편사진) 총 450 여명이 졸업하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 중앙사진은 신학교에 설치한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A&Ω) 방송실.



2022 년 가을학기 개강하다. 마리귀딸분교(왼편사진) 카리브복음신학원 본교(중앙) 엘띠그레분교(오른편사진) 수업교실

도밍고몬테스 Domingo Montes 중학교 운명



복음신학교 건물을 확장하여 교실을 여러개로 증축하여 도밍고몬테스 중학교와 공유하기로하고 16 개 교실증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차베스 정권이 들어 섰지만 아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시기였다.

신학교 건물내에 도밍고몬테스중학교를 2006 년에 인계받아 고등학교 인가를 추진하던 중 차베스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학생 등록금이 동결되며 학교 운영을 주 정부에 넘기도록 종용하여 학교를 운영 할 수

없게되었다 (2013 년). 이 학교사업을 소개하고 운영이사로 섬기는 분은 카리브신학교 출신 변호사며 중앙교회 목사였다. 중앙교회 목사관도 현지목사에게 교회승인없이 빌려주어 비우는에 3 년이 걸렸다. 사회주의 사상으로 모두 공유하자는가? 아~ 차베스처럼 선심쓰는구나!

쿠바를 예수님께로

쿠바한인후예들은 완전히 쿠바에 동화되었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은 “쿠바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이다.”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쿠바 한인후예들의 이민발자취: 인천-멕시코 유카탄에서 쿠바 8 개지역, 마나띠-마탄사스-깔데나스-아바나-씨에고데아빌라-까마구이-홀긴-마르까네 등 쿠바전역으로 이주하여 현재 6 대째 쿠바인으로 완전히 동화되었다. 8 개 지역에 산재한 한인후예들은 1300 여명이며 미주한인교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쿠바 동부지역 한인후예 사역

동부지역방문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홀긴으로 가는것이 편리하다. 리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욱 좋지만 경비가 만만치않다.

이번 동부지역 한인후예방문은 5 개지역 마나띠 까마구이 씨에고데아빌라 말까네 홀긴가정교회 방문이다.



동부지역 수송수단 광경: 마차 자전거 오토바이 추력 19 세기를 연상. 화장실 오픈하니 감사. 사용료 3 페소.



쿠바경제가 다시 살아나나? 정류소 근처에 잡상인들이 많다. 마늘 한마루 천페소 땅콩과자 70 페소 커피한잔 20 페소.

쿠바는 관광객 없으면 살수없는나라다. 그러나 코빗으로 전국이 닫혀있었다. 2021 년 11 월 15 일 기준으로 외국인들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공항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다. 검색도 지방으로 갈수록 엄하다. 홀긴공항은 최악의 공항이다. 아직도 전 근대적 사고방식이다. 쿠바를 외침에서 지킨다고. 아무 근거없다. 관료주의는 엄하다. 매번 입국때 마다 느끼는 점은 자유케하라다. 언제쯤 될지 몰라.



정류소 식당 한그릇에 1700 페소다. 사탕수수즙스 구아라포 맛 좋다. 잡상인은 주객까지 팔지만 누가 사냐?

쿠바 서부지역 한인후예사역

지난해 11 월-12 월 금년 4 월에 캐나다를거쳐 동부지역을 방문하여 행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마이아미를 거쳐 서부지역 방문하였다. 입국과 출국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혜로 완주하다. 입국시 전자양식에 익숙지않아 그의 2 시간을 허비하였다. 항공사 직원도 모르는...



쿠바한인후예들이 정 선교사와 미주교회를 방문을 기다리는것은 복음의 양식을 기대하지만 더욱 식료품과 약품에 관심이 많다. 서방세계의 고립정책으로 물가는 40%정도가 평가절하되었다. 거의

모든 개인식당은 운영이되지않는다. 식품재료를 구입할수가없다. 너무나 비싸다. 국가소유식당의 음식값도 30-40%인상되었고 고급개인식당의 음식값은 80%정도 올랐으니 누가 오냐?



SARATOGA HOTEL 가스폭발사고로 3 층까지 내려앉았고 수리 중. 유명한 NARDOS 식당도 침례교회도 폐쇄



한글학교교사시험참가자, GRISELLA 새 목녀, 안헬라마리아에게 셀폰 선물하다. 집 2 층에 침례탕도있구나.



마탄사스 한인후예들 60 여명은 31 일 신학교에 모여 복음듣고 의약품을 나누고 함께 점심을 먹고 교재하다.



6 월 1 일 8 명이 세(침)례받다. CARDENAS 7 명 아바나 1 명. 큰 잔치로 돼지다리 2 개로 모두 포식하다.



2022 년 6 월 2 일 KOTRA 이정훈 관장님 방문하여 현 쿠바사정과 여행객들이 준비할 일들을 경청하며 환담하였다 (사진 왼편). 식수를 구입 할 수 없어 수도물에 HIPOCLORITO DE SODIO 1% 넣어 마시다

(중) 마탄사스 목녀 안헬라마리아 가족에게는 특별선물로 많은 의약품과 우유등을 지원하였고 셀폰으로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다 (오른편 사진).

쿠바 서부지역 중 아바나 마탄사스 카르데나스 도시들을 방문하여 행각 예정지로는 알라말지역 아바나 마탄사스 칼데나스지역을 순방하여 결정·확보하거나 차후에 결정하도록 유보하기도하였다. GRISSEL 아바나 행각은 목녀로서 침례를 받은 후 확정하기로 합의하다.

이번 쿠바방문으로 쿠바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재 확인하였고 한인후예들이 미주방문자들을 확수고대하고있음을 재 확인하며 한인교회들의 동참을 권장한다. 경비가 많이 들지만...

후기: 다 내려놓지 못한자도 쓰시는 하나님



1945 년 한국이 해방되어 일본에서 밀항선으로 귀국하여 국민학교에서 귀환동포—우환동포로 취급 받으며 한국말 익히기에 노력하던 기억, 가정/경제사정으로 중학교진학 못하고 외국교회들의 구제사역으로 꿀꿀이 죽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구두딴기로 조롱받던 일, 야간 중학교에서 줄면서 공부하고 야간고등학교 진학하여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니 구두딴기 기술이 큰 도움 되는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산대 거쳐 해간 33 기 해병대 장교가되니 과거 하우스보이때 익힌 콩그리쉬 KOREAN ENGLISH 경험이 도움되어 군사영어학교 교관, 김포해병여단—미제 1 군단 통역-연락장교 경험으로 풀브라이트 연구교수 시험에 통과하여 1971-2 년 Texas A&M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 1977 년 해양수산과학 박사학위받고 미국남침례회 대학사역 영향으로 침례교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다. 베네수엘라 국립해양연구소 연구교수로 2 년 계약하여 석유자본에 팔려갔지만 자천 타천 “성령님 강권”으로 자비량선교한다고 어설렁그리다 보니 45 여년이 흐르면서 꾸마나 지역에 8 개 침례교회가 개척되고 카리브복음 신학원이 세워졌구나. 지금까지 주님은혜로 450 여명이 졸업하니 감사하다! 캐나다 은혜와평강교회에서 2020 년 쿠바 선교사로 파송하고 금년 2022 년 한국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 추천으로 쿠바협력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남은 여생 쿠바를 섬기도록 건강주시고 기회주시니 모두 하나님 은혜로다! 아멘!